



| 최우수작 |

지식의 재발견, EBS <지식채널e>

조철희

1. ‘지식홍수’ 시대의 TV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과연 지식혁명의 시대일까?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지식의 새로운 장이 열리고, 새로운 유형의 지식들은 실재없이 쏟아져 나온다. 이처럼 급속하게 변화한 지적 환경 속에서 우리는 과연 ‘명확한 인식이나 이해’라는 지식의 사전적 의미를 얼마만큼 충족시키며 살아가고 있는지 자문하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외부로부터 강요받은 지식과 정화되지 않은 지식들에 파묻힌 채 ‘지식 과부하’에 걸려 혼돈과 착각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아 있는 지식이 아닌 죽어버린 지식의 무덤가에 서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혹자는 ‘지식홍수’라는 말을 한다. 지식의 홍수는 지혜의 샘을 말려 버리고, 지식은 그 어느 때보다 사람과 삶으로부터 멀리 있다. 심지어

지식은 권력과 만난다. ‘지식 없는 권력의 행사는 불가능하며 권력의 효과 없는 지식도 불가능하다’는 미셸 푸코의 말처럼 우리 시대는 지식권력의 시대다. 앎과 모름의 구분이 엄격해 모르는 자들은, 지식이 없는 자들은 차별과 소외의 그물에 걸려든다. 한국사회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는 ‘영어권력’을 떠올리면 지식권력의 속성을 이해하기 쉽다. 영어지식을 갖지 못하면 진학도, 취업도 어렵기 마련이다. TV를 켜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사실 미디어가 지식권력을 만들어내는 데 크게 앞장서 온 것은 새삼스럽게 강조할 필요도 없다.

지금까지 TV는 지식과 정보의 전달자로서 또한 생산자로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그러나 경쟁적 상황으로 변화한 미디어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인 듯 무리하게 많은 양의 지식과 정보를 유통, 양산하고 있다. 비단 뉴스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정보와 지식을 앞세운 프로그램들이 너무나 많다. 아침정보프로그램, 엔포테인먼트 프로그램이란 이름으로 방송사들은 무분별한 정보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쏟아낸다. ‘게이트키퍼’과정까지 거치다 보면 지식과 정보는 변질에 변질을 거듭한다. 그러다 보니 시청자들은 그 수많은 지식과 정보들 속에서 도대체 무엇을 취사선택해야 할지 몰라 혼란에 빠진다. 이쯤 되면 TV를 켜기가 두려워질 만하다. 사실 최근 들어 TV를 멀리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었다.

TV가 지식권력과 지식공해의 양산자라는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한 가운데 ‘인간의 삶 속에서 살아 있는 지식’을 표방하며 지식을 재발견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 바로 EBS의 <지식채널e>다.

2. 지식의 재발견

지식은…… 암기하는 정보가 아닌 생각하는 힘, 현학적인 수사가 아닌 마음을 움직이는 메시지, 책 속의 깨알 같은 글씨가 아니라 책을 쥔 손에 맺힌 작은 땀방울, 승자가 말하는 게임의 법칙이 아닌 패자의 침묵 속 삶의 이야기(<지식채널e Special> 1~3편 중).

이처럼 <지식채널e>가 품고 있는 지식의 정의는 새로운 관점, 즉 기존의 지식에 대한 고정관념으로부터의 탈피에서 비롯된다. 기존의 지식들이 빈틈없는 논리를 추구했다면 <지식채널e>의 지식은 비어 있는 공간에 가깝다. 지금까지 우리는 칸을 가득 메운 숫자를 지식으로 여겨왔지만 <지식채널e>는 숫자에 담긴 사람들의 이름에 주목한다. 지식권력, 지식홍수의 시대에 참다운 지식의 재발견이다.

시청자의 한 사람으로서 <지식채널e>를 처음 접했을 때의 기억은 그다지 생생하지 않다. 채널을 돌리다 우연히 마주쳐 제법 새롭게 느껴지는 화면에 눈길을 쫓고, 어느새 5분이라는 러닝타임은 모두 지나가 버렸다. “이게 과연 어떤 프로그램일까? 정규 프로그램인가? 광고인가? 캠페인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지만, EBS 교육방송은 바쁜 직장인인 나의 채널 목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관심은 거기까지였다. 다음 기회의 우연한 만남을 기대하며 나는 다시 채널을 돌렸다.

그리고는 또다시 우연한 만남. 두 번째 만남의 기억은 제법 생생하다. 이번에는 좀 더 집중을 했다. 프로그램의 이름도 발견했다. “지식채널? 아, 지식을 전해주는 프로그램이구나.” 첫 장면에 사람의 심장이 쿵쿵 뛰고 있었다. “의학 소재인가? 역시 지식프로그램답군.”

정상 상태의 심장박동 수는 1분에 60~100회지만 더 빨리 될 때도 있는데 부당하다고 느낄 때, 화가 날 때,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자유를 갈구할 때라는 자막 설명이 이어졌다. “아~” 나도 모르게 탄성이 나왔다. “단순한 심장 얘기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내용은 드럼(drum)으로 넘어갔다. 세계 여러 나라의 드럼을 만났다. 그것은 일종의 여행이었다. 이번에는 록밴드 레드 제플린의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드러머 존 본햄은 심장的高동을 드럼 연주로 표현했다는 이야기였다(2006. 6. 5 <심장의 고동>).

심장과 드럼의 관계. 록음악과 레드 제플린을 좋아했던 나도 잘 몰랐던 새로운 지식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심장이나 드럼이 아닌 사람에 관한 지식이었다. 책 한 권을 읽은 듯했다. 1시간이 넘는 다큐멘터리 한 편을 본 듯했다.

<지식채널e>는 때론 여행이고 또 때론 독서다. 즉 휴식이다. 여행과 독서는 현대인들의 사랑받는 휴식 아이템이고, 5분은 간단하게 휴식을 취하기 좋은 시간이다. 이후로도 <지식채널e>를 볼 때마다 늘 휴식처럼 편안한 시간을 갖는다. 지금까지 어떤 지식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이렇게 마음이 편하고 부담이 덜한 적이 없었다. 대한민국 교육제도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으레 지식습득과정에서 거부감이나 중압감을 갖기 마련이지만 <지식채널e>를 통해 지식을 접하는 일은 늘 즐겁다. 때로는 눈물이 나올 만큼 감동적인 즐거움이기도 하다. 마음은 감동으로 충만하고, 머릿속은 새로운 지식들의 침입으로 즐거운 전쟁이 한창이다.

지금까지는 시청자의 한 사람으로서 <지식채널e>에 대한 애정을 표현한 것이기에 구체적인 분석은 잠시 보류했다. 프로그램을 좀 더 꼼꼼히 살펴보고 싶은 욕심이 든다. 이제 비평적 차원에서 <지식채널e>의 미덕과 한계를 짚어보고자 한다.

3. 삶 속에 살아 있는 지식을 담다

<지식채널e>의 핵심적인 특성이자 첫 번째 미덕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열린 생각’이다. 지식은 본질적으로 법칙이나 체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에 여러모로 닫혀 있기 마련이다. 그런 탓에 지식이 권력화하고, 일부 집단의 전유물이 되는 것도 가능했다. 하지만 <지식채널e>는 그러한 지식의 속성에서 벗어나 열린 사고, 창의적 사유, 마음으로부터의 믿음, 다양한 해석 등에 비중을 뒀다. 이처럼 새로운 관점은 제작진의 기획의도로 자리 잡으며 나아가 고정관념을 전복하고, 지식의 속살과 이면을 들여다보며 지식을 재발견하는 데까지 이른다.

가령 하늘에서 내리는 눈에 대한 지식. 닫힌 사고로는 모두 똑같은 눈송이처럼 보일 것이다. 하지만 생각을 열고, 사물에 대한 관심과 애정의 눈길을 더하면 세상에는 똑같은 모양의 눈송이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똑같은 사람이 없는 것처럼 똑같은 눈도 없는 것이다(2007. 2. 26. <눈, 사람>).

현대사회의 대표적인 통계지식인 GDP(국내총생산)는 <지식채널e>의 새로운 관점에 의해 그 진실성이 전복된다. 오늘날 한 국가가 갖는 부의 척도로 여겨지는 GDP는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국민 건강이 악화되어도 위장약이 많이 팔리기만 하면 그 수치가 증가한다. 평화를 위협하는 무기 생산의 증가 역시 GDP를 끌어올린다(2007. 2. 19. <GDP와 점보제트기>).

<지식채널e>는 날카롭게 우리의 고정관념을 파고들어 그것의 진실성이나 신뢰성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 못지않게 기존 지식에서 소외되거나 숨겨진 부분들을 어루만지며 고정관념 속에 묻힌 가치를 재발견하는 것에

도 노력을 기울인다.

일제 식민지 시절 콰이강 다리 건설에 강제로 동원된 3,000명의 조선인들 중 일부는 B·C급 전범으로 분류돼 해방 후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한다. 심지어 사형당한 이들도 있었다. 그 가슴 아픈 지식을 우리는 미처 알지 못했다(2007. 2. 26. <나의 살던 고향은>).

시장의 자유를 주장하는 데 자주 인용되며 자본주의 시대의 필독서로 알려진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 그러나 정작 시장의 자유 못지않게 자본가들의 도덕성을 비판하고, 날카롭게 그 책임을 물었던 애덤 스미스의 진의는 자본으로 위시되는 지식권력의 장막에 가려져 있었다는 사실. 그 역시 우리는 잘 알지 못했다(2007. 1. 22. <국부론 1권 11장>).

화려한 명성의 액션 배우, 이소룡의 내면에 자리 잡은 삶의 철학 역시 우리 지식의 범주에는 쉽게 끼어들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우리는 오로지 그의 겉모습에만 열광하고 있었던 것이다(2007. 1. 22. <이소룡이 이소룡에게>).

이처럼 <지식채널e>가 재발견한 지식은 시청자의 인식을 보다 넓은 지평으로 이끌어준다. 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애정을 토대로 <지식채널e>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사회 현실에 대한 천착은 지식을 사전 밖으로 꺼내 삶의 자리에 놓이게 한다. 기존의 지식이 사람과 삶으로부터 동떨어져 그것을 지배하는 권력으로 작동하거나, 차별을 위한 도구로 쓰이고 있는 현실에서 의미심장한 노력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 노력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서부터 시작한다. 과외와 시험에 짓눌린 초등학교생들의 삶을 이야기한 <대한민국에서 ‘초당’으로 산다는 것>(2007. 4. 30)은 엄밀히 말하면 지식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여기’의 현실에 가깝다. 그러나 현실에 무관심한, 특히 약자들

의 현실에는 더더욱 관심이 없는 우리들에게는 현실도 지식의 대상에 속할 만하다. 어느 초등학교 2학년생이 성적 때문에 자살을 마음먹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야말로 충격이었다. 것처럼 충격적인 지식이 없었다.

이번엔 노인들의 삶에 다가가 본다. 자식들과는 연락이 끊긴 채 폐지 수집으로 생계를 이어가며 쪽방에서 수십 년째 살아가고 있는 어느 노부부의 이야기다. 어느 날 아내가 병에 걸려 자리에 눕자, 남편은 동반자살을 결심하고 78년이나 함께 산 아내를 죽이는 독한 남편이 된다. 그는 달력 뒷장에 쓴 유서와 함께 자식들을 위해 장례식 비용 250만 원을 남긴다. 이 방송 <잊혀진 대한민국V-너무 슬퍼하지 마라>(2007. 4. 2)를 보고, 나는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무지’에 대한 반성의 눈물이었다.

무지를 딛고 일어서서 이제는 알고 싶었다. 무엇이 문제인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식이 각성과 실천을 유발하는 순간이었다. 그것은 <지식채널e>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 같다. 65세 이상 노인 단독가구가 126만여 호에 이르는 현실을 지적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국회에서 계류되고 있는 현실을 작지만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실종 문제(2007. 1. 8 <실종>), 인터넷 악성 댓글 문제(2007. 2. 19 <대삼이의 일기>) 등 <지식채널e>의 현실에 대한 문제제기와 비판은 계속된다.

<지식채널e>가 다루는 지식은 그 소재와 성격, 형식에 따라 나뉘볼 수 있는데, 사회현실과 관련된 지식은 현실참여형 지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지식채널e>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소재를 다루면서 새로운 시각으로 지식을 재해석·재구성하고 있으며 아울러 보기 드물게 독특한 형식으로 시청자들의 감성을 충족시키며 지식을 전하고 있다. 내용적인 부분 못지않게 이 같은 형식적인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미덕을 발견할 수 있다.

4. 동시대의 감수성을 투영하는 참신한 방송형식

방송이라는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면 형식에 대한 고민과 노력은 좋은 프로그램이 지향해야 할 부분이다. 지식을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는가는 어떤 관점에서 지식을 재해석·재구성하느냐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지식채널e>가 형식적인 고민과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높게 평가할 수 있다.

우선 방송의 새로운 장르 혹은 스타일을 만들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5분이라는 방송분량은 지난 2003년부터 방송됐던 MBC <한뼘드라마> 이외에는 지상파에서 어떤 프로그램도 시도하지 않았던 시간적 형식이다. 어떻게 보면 기형적인 형태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식채널e>는 짧은 시간에 쫓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여유 있고, 휴식 같은 느낌을 만들어 낸다. 사진첩 형식과 같은 새로운 연출 스타일이 대표적이다. <지식채널e>는 사진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시청자들은 사진첩을 넘기듯이 한 장 한 장 사진을 보면서 여유 있게 TV를 시청할 수 있다.

또한 뮤직비디오(2006. 10. 23 <2006, 낭만고양이>)나 드라마(2007. 1. 29 <스프가 없네>) 같은 형식 역시 참신함을 더한다. 비록 그러한 형식들이 자주 등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형식적 변주를 통해 고정되지 않은 방식으로 지식을 전달함으로써 시청자들로 하여금 지식습득 과정의 거부감을 덜게 하고 시청의 흥미를 높이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었다.

또한 자막과 음악의 활용 역시 뛰어나다. 음악을 들으며 책장을 넘기는 것 같은 느낌을 자아낸다. 방송 후 배경음악에 대한 시청자와 네티즌들의 관심은 프로그램 홈페이지의 ‘음악게시판’으로까지 이어진다. 이처럼 쌍방향의 참여형 프로그램을 지향하는 것도 <지식채널e>의 장점인데, 프로

그럼 홈페이지에는 ‘시청자 지식 창고’라는 게시판도 있어 시청자들이 직접 방송 소재를 제안하기도 하며 실제로 방송 소재로 채택된 경우도 있다. 이러한 점들은 동시대의 감수성을 형식적으로 방송에 투영하려는 제작진의 노력으로도 볼 수 있다.

5. 생산적·창조적 TV 프로그램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서 언급한 <지식채널e>의 많은 미덕들은 한편으론 아쉬운 점들을 남기기도 한다. <지식채널e>가 보여주는 사회현실에 대한 관심과 비판은 지식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지식의 새로운 역할을 제시하기도 하지만 형식적으로 다른 시사비평 프로그램이나 뉴스 프로그램과 차별성을 드러내지 못해 “<지식채널e>가 아니어도 다른 프로그램에서 볼 수 있지 않냐”는 지적을 가능케 한다. 또한 지식의 범주가 지나치게 넓은 경향이 있어 ‘지식’을 표방하는 프로그램으로서 특성화가 약하기도 하다.

참고문헌에 지나치게 의존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위인들의 격언이나 문헌의 발췌문들을 특별한 고찰 없이 인용하거나 정리하는 경우도 간혹 눈에 띈다. 영상의 많은 부분을 사진에 의존하는 것도 단점이 될 수 있다. 사진첩과 같은 유연한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론 움직이지 않는 영상에 한정되는, TV매체의 특성을 심분 발휘하지 못하는 한계에 머무르는 것일 수도 있다. 이는 볼거리가 한정적이라는 단점이기도 하다.

자막 등 문자 의존적인 점은 문자 중심의 전통적 지식체계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시각 장애인들의 접근에도 상당한 제약이 있을 것이다. 제작진의 보다 다양한 형식적 고민과 시도가 필요한 지점이다.

교육방송이라는 태생적인 채널 접근성의 한계 때문에 보다 많은 시청자

들의 관심을 얻는 데 어려운 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는 달리 보면 교육방송 EBS의 또 다른 가능성이기도 하다. 지식백화점이나 지식가공소가 아니라 <지식채널e>처럼 지식의 새로운 장으로서 EBS가 재탄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해왔던 지식의 재발견을 넘어 지식창조에도 도전해볼 만하다. 지금과 같은 <지식채널e>의 성실한 노력이 계속된다면 이를 기폭으로 소비적이기만 하던 TV가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전망을 그려볼 수 있을 것이다. 아무쪼록 <지식채널e>가 앞으로도 계속 청소년부터 성인들까지 휴식처럼 느낄 수 있는 지식 프로그램, 지식 채널이 되기를 기대한다.